

大韓眼耳鼻咽喉皮膚科學會誌：第15卷 第1號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Vol. 15, No 1, August 2002.

## 소아 농가진 환자 1례에 대한 임상 고찰

金弼洙 · 金喜澤\*<sup>13)</sup>

### ABSTRACT

#### The clinical study of a patient hospitalized due to Impetigo

*Kim Pil-su · Kim Hee-taek*

The 4-year-old female patient who has been suffer from papules, vesicles, pustules, scabs, itching underwent oriental treatment after she failed to see a remedial value from treatment at a local hospital.

The authors report that above symptoms disappeared after she received orienta medical treatment such as herb and external medicine.

Key Words : Impetigo

---

\* 세명대 안이비인후피부과교실

## I. 緒 論

농가진이란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피부의 얇은 표재성 화농성 감염을 말하는데 늦은 여름에 잘 생기며, 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 감염증이다<sup>1)</sup>.

한의학에서는 黃水瘡, 滴膿瘡 등의 범주에 속하며, 夏節에 腠理가 不密하여 風濕熱毒의 外感邪氣가 肌表에 침입하거나, 脾의 運化失調로 水濕이 阻滯되고 蘊濕化熱로 傳變되어 濕熱이 皮膚에 搏結하여 또는 소아는 腠理가 嬌嫩하여 固密치 못하므로 風濕熱毒의 邪氣가 쉽게 침범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증례는 2001년 10월경에 본원 외래를 경유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병변의 형태를 통해 농가진으로 진단하고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겸하여 시행한 결과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I. 證 例

1. 이름 : 엄 ○ ○ (4/F)
2. 주소 : 전신 발진 및 수포
3. 발병일 : 2001년 9월 26일 처음 발견 → 2001년 10월 1일경 전신으로 넓게 퍼짐
4. 과거력 : ① 2001년 7월 말경에 감기 증세 나타나 개인 소아과 및 본원 소아과에서 비염 진단 받고 경구약 복용후 다소 호전됨.
5.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6. 현병력 : 현 4세의 여자 환자로 평소 별무 기호 식해음 평소 別無大病 하던중 2001년 9월 26일에 후두부 우측 풍지혈 주위에 콩알보다 조금 작은 빨간색의 포진이 처음 발견된후 2001년 9월 27일, 29일 개인 의원에서 주사제와 경구약의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후두부로 포진이 계속 퍼지면서 진물이 흐르는등 증상이 악화되어 개인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권유, 적극적인 한방 피부과 치료를 받고자 2001년 10월 4일 본원 외래를 경유하여 608호에 입원함.
7. 검사소견 : Table 1 참고.
8. 증상경과 및 치료내용 : Table 2, 3 참고

Table 1. The Results of Laboratory (2001. 10.4)

CBC	9,300-4,340,000-12.4-35.9 (WBC-RBC-Hgb-Hct), ESR : 6mm/hr
BC	W.N.L
U/A	W.N.L
Serology	CRP(-), ASO(-)

Table 2. Changes of Clinical Symptoms

Date	Clinical Symptoms
10월 4일	후두부 : 풍알만한 수포가 여러개 있으며 진득한 진물이 조금씩 흐름. 항부, 안면부 및 복부, 상하지에 3~4개의 반진이 붉은 반점 형태로 나타남.
10월 5일	후두부 : 수포에서 진이 흘러나와 머리카락에 엉겨 붙음. 가 전체적으로 붉음. 하퇴부 후면에 2~3개 반진이 새로 나타남.
10월 6일	후두부 : 어제보다 정도가 심해짐 우측 대퇴 및 하퇴부 : 반진이 2개 새로 생김
10월 7일	후두부 : 어제와 비슷한 정도이며 진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딱지가 생기는 곳도 있음. 다른 부분은 별무 변화함.
10월 8일	후두부 : 어제보다 암홍색 딱지가 덮고 있는 부분이 많으며 여전히 진물은 흘러나옴. 복부에 좁쌀 크기의 반점이 5개 생김
10월 9일	후두부 : 진물이 점차 줄어들면서 딱지가 더 넓게 퍼짐 좌측 하지부의 반진들은 암홍색의 딱지가 붙어 있음.
10월 10일	후두부 : 진물이 50%정도 감소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대부분 딱지가 생긴 상태임
10월 11일	후두부 : 후발제 및 풍지부위까지 대부분 딱지가 붙어 있음. 하퇴부 : 딱지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피부조직이 조금씩 생김.
10월 12일	후두부 : 딱지가 점차 제거되기 시작하며 진물은 거의 나오지 않음.
10월 13일	후두부 : 딱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두피의 색깔이 점차 빨간 빛이 사라져감. 다른 부위도 거의 딱지가 탈락되면서 새살이 돌아남.

Table 3. Changes of Treatments

	Herb-Med	외용약	세명의원 West-Med
10월 4일	涼血除濕湯加味方*		5% D.W 500ml(+Lincomycin 1/2@) iv qd.
10월 5일			Dressing bid
10월 6일			Lincomycin 1/2@ im bid. Dressing
10월 7일			Lincomycin 1/2@ im qd. Dressing
10월 8일			Dressing
10월 9일			Dressing
10월 10일	龍膽瀉肝湯加味**	金銀花 100g, 牛蒡子 50g, 苦蔘 50g, 枯白礬 20g	
10월 11일	加 牛蒡子 6g, 苦蔘 20g	달인물 400cc + 포타	
10월 12일	4g, 乳香 2g, 沒藥 2g	딘 80cc	
10월 13일			

\*涼血除濕湯加味方 : 滑石 20g, 生地黄 8g, 牡丹皮, 金銀花, 蒲公英 6g, 赤芍藥, 薏苡仁, 黃芩, 白鮮皮, 地膚子, 苦蔘, 甘草, 牛蒡子 4g,

\*\*龍膽瀉肝湯加味 : 龍膽草, 金銀花 10g, 柴胡 8g, 木通, 車前子, 白茯苓, 生地黄, 當歸, 梔子, 黃芩, 澤瀉 4g, 連翹, 篇蓄, 瞿麥, 燈心, 木香, 香附子, 甘草 2g

### III. 考 察

농가진이란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피부의 얇은 표재성 화농성 감염을 말한다<sup>1)</sup>. 어린 소아에서 가장 흔하고 따뜻한 계절에 잘 생기며 한대 지역 보다는 아열대나 열대 기후에서, 그리고 위생이 나쁜 지역에 있는 소아에서 감염이 더 흔하다<sup>2)</sup>.

임상적으로 수포성과 비수포성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포성 농가진은 황색포도구균에 의하며, 비수포성인 전염성 농가진은 황색 포도구균, 연쇄구균의 단독 또는 둘의 혼합감염에 의하여 발생한다<sup>1)</sup>. 그러나 박 등<sup>3)</sup>은 수포성은 물론이고 비수포성 농가진에서도 주 원인균이 황색포도상구균이라고 주장하였고 반면 일부에서는 연쇄구균이 일차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sup>.

수포성 농가진(Bullous Impetigo)은 얼굴이나 손에 한 두 개의 소수포가 나타나 갑자기 커져 수포가 되고, 내용물은 처음에는 맑다가 곧 혼탁해진다. 수포의 중심부가 터지면 쭈그러지거나 가장자리는 고름액이 테를 두른 듯이 수일간 남아 있다. 병변을 둘러싼 홍반은 없거나 경미하고 국소 림프절 종창도 대부분 없다. 처음에는 전신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는 힘이 없고 열이 나거나 체온이 정상보다 떨어지기도 한다<sup>1)</sup>.

전염성 농가진(Impetigo Contagiosa)은 농가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무덤고 습한 여름철, 특히 늦은 여름에 잘 생기며, 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 감염증이다. 얼굴(코, 입주위)이나 사지에 잘 생긴다. 붉은 구진으로 시작해서 소수포, 농포 또는 대수포로 변화하여 파열되면 장액성 분비물이 나오며, 벌꿀색의 끈적한 가피로 덮혀 있으며 가피를 제거하면 빨간 기저면이 노출된다. 병변은 점차 바깥으로 번져나가면서 중간부위는 나으며, 여러

병변이 합쳐지기도 한다. 염증 때문에 가려울 수 있고, 병변 부위를 손가락으로 긁거나 수건을 닦으면 몸의 다른 부분으로 퍼진다. 심한 경우 통증이 있는 국소 림프절 종창이나 열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sup>1)</sup>.

국소항생제는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항생제만큼 효과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mupirocin 연고를 바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만약 침범된 부위가 넓거나 발열 또는 독성, 또는 신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연쇄상구균의 균주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전신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한다<sup>4)</sup>.

이외에 임신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농포성 건선의 한 형태인 포진상 농가진(Impetigo herpetiformis)이 있는데 이는 1872년 von Hebra에 의해 최초로 기술된후 세계적으로 100여 남짓 보고된 아주 드문 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3예<sup>5-7)</sup> 정도가 보고되었다. 본 질환은 굴측부의 홍반과 경계부위의 농포를 보이고 동반되는 심한 전신 증상과 태아부전증으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sup>7)</sup>.

한의학에서는 농가진을 黃水瘡, 滴膿瘡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데 역대 문헌<sup>8-10)</sup>에서는 “黃水瘡于頭面 耳項 忽生黃染 破流脂水 頃刻沿開 多生痛痒.”라고 하여 질병의 발생 부위와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病因病機로는 크게 濕熱交阻型和 熱毒蘊結型으로 구분하였다<sup>11-13)</sup>. 濕熱交阻型은 夏節에 腠理가 不密하여 혹은 소아의 腠理가 嬌嫩하고 固密치 못하여 風濕熱毒의 外感邪氣가 肌表에 侵入하여 발생하며 清熱祛濕解毒하는 芎連平胃散, 清暑飲, 龍膽瀉肝湯 등을 활용한다. 熱毒蘊結型은 脾의 運化失調로 水濕이 阻滯되고 蘊濕化熱로 傳變되어 濕熱이 皮膚에 搏結하여 발생하며 清熱解毒涼血하는 五味消毒飲, 黃連解毒湯, 仙方活命飲 등을 활용한다.

본 증례의 환자는 발병 초기에 몇 개 안 되는 반진에 대하여 보호자가 벌레에 물린 것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소수포, 농포로 변하면서 곧이어 다른 곳으로 번져가자 병원을 내원하였다. 입원 당시 이미 반진에서 소수포, 농포까지 여러 형태의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진물이 군데군데 있었고, 특히 후두부의 머리카락은 마치 꿀물을 발라 놓은 모습이었으며 약간의 소양감을 호소하였다. 보호자로 하여금 소양감으로 인해 수면중 피부를 긁을 수 있으므로 병어리 장갑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손을 감싸도록 하였으며, 수건은 분리 사용하고 따로 세탁하게 하였다.

병변의 형태를 통해 저자들은 농가진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였으나 확진을 위하여 그람염색과 배양이 실시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미 입원시부터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으면서 홍반이 있으므로 濕熱交阻型으로 진단하고 淸熱祛濕시키는 治法의 涼血除濕湯加味方<sup>13)</sup>을 사용하였다. 이는 淸熱시키고 除濕熱하여 濕疹이나 濕瘡등의 皮膚病에 多用하는 滑石을 君藥으로 하여 淸熱涼血시키는 生地黃, 牡丹皮, 赤芍藥 등과 淸熱解毒하는 金銀花, 蒲公英 그리고 淸熱利濕시키는 薏苡仁, 黃芩, 白鮮皮, 地膚子, 苦參등의 약재로 구성된 처방이다.

또한 혈액검사상에서 별다른 소견은 없었으나 병의 진행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 세명 의원에 의뢰하여 Lincomycin을 4일간 투여하면서 과산화수소수와 포타딘으로 하루 2차례 dressing을 실시하였다.

점차 홍반이나 진물이 감소되어가고 가피가 형성되어 소양감을 많이 호소하자 龍膽瀉肝湯 加味方<sup>14)</sup>으로 교체하여 투여하였다. 그리고 한방 外用藥으로서 金銀花, 牛蒡子, 苦參, 枯白礬 등을 달인 물로 하루 2차례 dressing을 실시하였다. 이

外用藥은 淸熱解毒 시키는 효능이 있어 피부 병변의 초기 熱證이 심하여 發斑, 色紅, 發熱, 瘙癢感 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이다. 이와 같은 처치로 점차 진물이 감소되면서 가피가 형성되고 동시에 탈락되기도 하면서 선홍색의 신생 조직이 생겨났고 곧이어 그 색깔도 점차 정상 피부색을 띄어갔다.

이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한차례 받은 후 모두 완치되었으며, 전화통화를 통해 추적조사를 시행한 결과 농가진의 증상은 그후에도 재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IV. 結 論

본 증례의 환자는 濕熱交阻型으로 진단한 농가진 환자의 임상례로서 한약의 투여와 외용약의 병용을 통하여 증상소실의 효과를 보았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농가진은 전염성이 강하고 그 증상의 변화가 신속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치료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방 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이에 대한 임상보고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피부병중에서 전염성이 강한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치료기술의 개발과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 參考文獻

1.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편찬위원회 : 피부과학, 서울, 여문각, pp.266-268, 2000.
2. Kurt J Isselbacher 등 : 해리슨 내과학, 서울, 정담, p.662, 1997.

3. 박성욱, 왕한영, 성호석 : 농가진의 원인균 주, 항생제 감수성 검사 및 치료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31(3):312-319, 1993.
4. Lawrence M. Tierney, Jr. MD 등 : 오늘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한우리, pp.155-156, 1999.
5. 정현, 김홍직, 김영근, 김태은 : Retinoid로 치유된 포진상 농가진 1예, 대한피부과학회지, 27(1):69-72, 1989.
6. 강호정, 함정희 : 포진상 농가진 1예, 대한피부과학회지, 30(2):229-233, 1992.
7. 홍창의, 이일주, 김수찬, 서경 : 태아사망을 보인 포진상 농가진 1예, 대한피부과학회지, 35(1):150-154, 1997.
8. 陳實功 : 外科正宗,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314, 1989.
9. 顧世澄 :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124-1125, 1992.
10. 孫震元 : 瘍科會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32, 1987.
11. 顧伯華 主編 : 實用中醫外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464, 1985.
12. 東醫治療經驗集成 編纂委員會 : 東醫治療經驗集成, 第14卷 皮膚科疾病, 서울, 海東出版社, 21-22, 1997.
13. : 韓方專門醫叢書, 皮膚科·泌尿器科, 서울, 海東出版社, pp.59-61, 1996.
14.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 : 한방병원처방집, 대전, 한국출판사, p.339, 2001.